Ethylene, 정기보수 불구 "정체"

FOB Korea 775-785달러로 10달러 상승 그쳐 … 5월 중국쇼크 주목

Ethylene 가격은 4월30일 FOB Korea 톤당 775-785달러로 10달러 상승했다.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일본, 한국, 타이완의 크래커들이 정기보수에 들어가 공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 한계상황에 도달하고 있다.

4월24일 트러블 다발에 따라 40달러 급등한 이후 정기보수로 공급이 줄었음에도 10달러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석유화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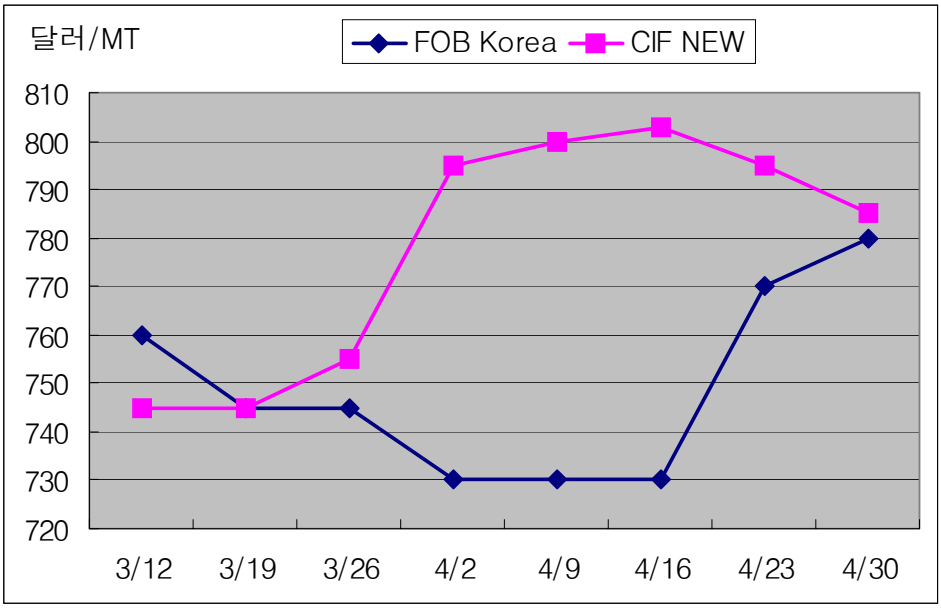
다만, LDPE, LLDPE, HDPE 가격이 요지부동인 상태에서 에틸렌 가격만 상승해 수익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PE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필리핀의 JG Summit은 PE의 경제성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Batangas 소재 PE 플랜트 가동을 중단할 방침이다. 생산능력은 20만톤으로 현재 가동률이 55-6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대석유화학이 쿨링 시스템에 문제가 나타나 6월 에틸렌 58만톤의 No.2 크래커 가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네시아의 GTP는 5월 하순 거래물량 3300-3500톤을 CFR Merak 톤당 830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 타이완은 770달러 수준에서 협상하고 있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4월30일 CIF NWE 톤당 780-790달러로 10달러 하락했으며, 2/4분기 계약가격은 607유로를 나타냈다.

<화학저널 2004/05/07>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